

소개: 정체성 + 목적

그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피아에게 있어 그것은 그녀의 가족, 그녀의 상상력,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체성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체성 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정체성을 위한 지원 그룹...

...그리고 "이즘"에 의해 주도되는 시민사회의 분열

모든 곳에서 동시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속해 있나요?”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야기/그림: 몇 년 전 **Foursquare** 리더 중 한 명이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들의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의 연구 중 일부는 전국 목회자들에게 자신을 한 단어로 정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수많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도자

최고 경영자

공상가

미래파 예술가

변경 에이전트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목사님은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목자님.”

이 목사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들은 목자라는 한 단어로 모였습니다.

호흡

그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정체성과 목적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학생

운동 선수

예술가

의사

호흡

엄마, 아빠, 조부모님

아들이나 딸이나

편부모

호흡

생존자

범죄자

중독자

호흡

이러한 레이블은 강력한 정체성 형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습니다.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제일 잘 생겼어요.”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당신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왜 당신은 당신의 형제, 자매, 또는 누구와도 더 비슷해질 수 없나요?”

호흡

우리는 '거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거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반영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정체성과 목적.

호흡

그러나 이러한 반성은 우리 대부분에게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아름다운 인간을 문구나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반대 제안을 합니다.

운동 1: 하나님의 계획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3-14

이 글을 읽으면서 마침표, 쉼표, 심지어 단락 구분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하나의 긴 문장이예요.

이 구절은 절벽 위로 떨어지는 폭포처럼 풀에게서 떨어져 나와 평범한 일상 세계를 반짝이는 하이라이트로 흠뻑 적셔줍니다.

그분은 평범한 삶, 심지어 감옥에 갇힌 삶에도 이 찬양을 부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호흡

이 구절은 신약성서의 허블 망원경이자 심장을 위한 현미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의 거대한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작고 아픈 균열 속으로 파고드는 길을 찾아냅니다.

우리 과거의 고통으로 인해 이음새가 깎여졌습니다.

우리가 이 독특한 구절을 읽을 때, 언어가 씻겨져 여러분 안으로 스며들게 하십시오.

호흡

에베소서 1:3-14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차면 이루려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상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아래 있는 땅.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둔 우리로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영광의.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이 말을 “찬양”으로 시작하고 끝냅니다.

“찬양”이라는 단어는 종종 “축복” 또는 “축복을 받다”로 번역되는데, 이는 특히 추도문과 같은 공식적인 방식으로 칭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추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프닝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대하여 말하라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와 선의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좋게 말씀하셨느니라.”

호흡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그분의 입에 안전하다고요?

당신이 예수님께 속했다면 그분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정체성의 원천입니다.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거나 자주 소외감을 느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당신은 기록하시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좋은 일에 포함되어 계십니다

당신은 구속되었고 용서받았으며 흠이 없습니다. 구원의 언어는 전당포의 언어이다. 당신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값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 깊이, 열정적으로 + 모든 것이 "예정"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합되었습니다. 당신은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당신은 보장된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보장은 하나님 자신의 영입니다.

이것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흡

당신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 구절의 “거울”에서 당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대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보이시나요?

당신이 희망을 찾고, 치유되고, 자유롭게 번영할 수 있는 동산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아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셨는가?

문제는: 당신은 그것을 믿을 것인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열정적으로요.

운동 2: 우리의 대응

에베소서 **1:12**

...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소망을 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처음 11절의 모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영광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참되고 합당한 예배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그것이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풀은 좋은 유대인이예요.

그는 축제 기간 동안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희생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는다.

호흡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배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동물들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십시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대신. 생명이 가득해요!

당신의 삶은 지속적이고 활기차고 매력적인 예배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영광을 칭찬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고려할 때 유일하고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로마서 **12:1**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1:33-36**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습니까?

그리고 추적할 수 없는 그의 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니면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으셔야 하겠느냐?”

그에게서, 그를 통해, 그를 위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아멘.

여기 메아리가 들리나요? 에베소서, 욥기, 시편, 이사야서 중에서.

이것은 에베소서 1장과 다르지 않은 아름다운 요약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속받은 예배자로, 산 제사로 살아가는 것은 가치 있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삶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습니다.

(보가 말했듯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예배하기에 합당합니다(**axios**).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축복의 무게, 곧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호흡

이 방을 둘러보면 여러 세대의 "엑시오스" 숭배자들이 보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진리를 서로에게 비추는 "거울"을 봅니다.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을 봅니다.

그래서 잠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호흡

Z세대(중, 고등학생을 좋아함, 올인)

밀레니얼 세대(스트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

부머 (이야기하자...)

운동 3: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의 처음 14구절에서 예수님은 15번 언급됩니다.

그 중 11번은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 안에"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 즉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창조된 모든 것의 통일성, 살아 있는 예배의 삶, 완전한 유업에 대한 성령의 보증 등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만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은 그분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희망적이고 치유되고 자유롭게 번영하는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절망과 깨어짐과 속박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단순히 그분께로 향합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 삶에서 죽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지만, 그것도 기적적인 과정인가...

로마서 12장 2절은 12장 1절을 따릅니다. “...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사랑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시간 기반의 과정입니다.

친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선하심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거부하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요한복음 8:31-32

당신은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예배자로 살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선물이자 명사이지만 동사이기도 하다... 신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족, 친구, 목사, 치료사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스토리/일러스트: J와 Z

축복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베푸는 날까지 여러분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게 지키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